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7-01

여연포커스

YDI FOCUS

발행일 2017년 1월 5일 (목)

2017년 7大 대선 키워드

- 2016년도 신조어를 통해 본 대한민국 사회상 -

- 목 차 -

要 旨	i
I. 2016년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였는가?	1
II. 2016년 신조어	4
III. 2017 7大 대선 핫키워드	13
IV. 키워드를 통해 새누리당이 배워야 할 점	20
참고문헌	21

작성 : 김초원 객원연구원
(02) 369-7934

《 要 旨 》

1. 2016년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국가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약화로 인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각자도생의 시대 도래
- 불안정한 일자리로 현재지향적 성향 증가하여, 한번 뿐인 인생, 순간에 충실하여 지금을 만끽하려는 욕구가 강해짐
-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1인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非혼의 증가
-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양극화가 심화됨

2. 2016년 신조어

- 정치 관련 신조어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반영되었으며, 현 사태에 대한 풍자가 담겨져 있음
- 사회·생활 관련 신조어에는 국가와 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의 심리와 장기 불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반영됨
- 경제 관련 신조어에는 장기 불황과 경제난이 반영되었으며, 나홀로족의 증가로 인해 1인 문화가 하나의 문화코드로 반영됨
- 취업 관련 신조어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반영되어 취업준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를 표현

3. 2017년 대선 7大 핫 키워드

- **경제위기 극복** : 정치사회 불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구체적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공약 제시를 통해 경제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해야함
- **일자리 창출** :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 마련 필수
- **청년 문제 해결** :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저출산 문제 해결** : 출산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한 상태이며, 청년층의 취업난, 주거난, 생활난 등이 극복되어야 함
- **국가적 신뢰감 구축** : 국가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가적 신뢰 제고 필수
- **공정사회 구축** : 사회적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와 함께 범국가적 공정성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 필요
- **국민과의 소통**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적 반감을 줄어나가고, 유권자 지지성향을 파악하여 마이크로 타게팅으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도해야함

4. 신조어를 통해 새누리당이 배워야 할 점

-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의 불평등·불안·불공정 '3大 불(不)' 해소
-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국민들과의 소통 필요
- 강한 리더십으로 국가적 방향성 제시 필요

I. 연구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국내에서 생겨난 신조어를 분석하여 이에 반영된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고찰하고, 2017년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선 이슈를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유행어와 신조어는 ▲사회적 변화 ▲사회 이슈 등의 사회상 및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언어적 도구로써, 유행어와 신조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여 국민들의 삶을 알아보려고 함
-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시대상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2017년 주요 대선 공약을 개발 연구를 하기 위함

Ⅱ. 2016년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불안 사회

○ 국가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약화

-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빈발하는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고위층 비리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짐
-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2016년 옥시 사태, 경주 지진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사회전반으로 번짐

○ 스스로 알아서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각자도생의 시대 도래

- 재난과 사고에 대한 정부·정치·기업의 대응에 국민들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 불신과 불안감이 표출됨
- 타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고, 세대 간의 소통 단절과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층의 반감이 뚜렷해지면서 공동체 의식 약화

□ 불안정한 일자리로 현재지향적 성향 증가

○ 한번 뿐인 인생, 순간에 충실하여 지금을 만끽하려는 욕구가 강해짐

-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고 디플레이션 시대가 도래 하면서, 한번 뿐인 인생 순간에 충실하자라는 ‘올로 라이프(You Only Live Once)’의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경제난, 취업난, 생활난, 주거난 등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보다는 즉시적 만족, 지금 당장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현재 지향적, 현재 중심적 생활방식이 늘어나고 있음

□ 1인 문화 확산으로 인한 공동체의 약화

○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1인 문화의 확산으로 열린 1인 시대

- 1인 가구를 넘어 취업 이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新캥거루족,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족,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덩펫(dinkpet)족 등 공동체 문화를 대체하는 개인주의 시대가 열리며 자발적 고립을 즐기는 얼로너(aloner)들이 증가

○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非혼의 증가

-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자아실현을 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증가하고, 취업난으로 인해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짐
- 2030 젊은층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으로 바뀌면서 비혼이 증가하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양극화 심화

○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정규직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를 차지
- 경기불황으로 인해 음식·주점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3만명 감소하였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도 2만 8,000명 감소¹⁾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각각 417만원과 149만원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의 심한 차이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
- 청년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적으로 발생

1)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노동부, 2016년 10월

Ⅲ. 2016년 신조어 분석

□ 정치 관련 신조어

- ‘최순실게이트’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반영되어 집단 좌절감을 표출하고, 현 사태에 대한 풍자가 담겨져 있음
 - **순실증** :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국정 농단 사태로 좌절되어 허탈감과 무기력증 호소하는 증상
 - **순실금** : 하나씩 불거져 나오는 최순실 관련 사실들이 ‘요실금’ 같다는 의미
 - **순Siri** : 애플 인공지능 ‘시리(Siri)’를 변형한 신조어로, “순Siri야, 연설문 고쳐줘” 등으로 표현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풍자
 - **순실4년** : 조선시대 왕의 연호를 패러디 한 용어로, 美 시카고컵스가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두자 온라인에서 시카고컵스 월드시리즈 역대 우승년도를 ‘순종 원년 1907, 순종 2년 1908, 순실 4년 2016’로 풍자
 - **순실의 시대** :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상실의 시대’를 ‘순실의 시대’로 패러디

※ 대선주자 관련 '키워드'

- ▶ 기름장어 : 반기문 총장이 어렵고 민감한 질문에 매끄럽게 잘 피해간다는 의미로, 미꾸라지로도 풍자됨
- ▶ 사이다 : 이재명 시장이 과격 하면서도 직설적인 말로 국민들을 시원하게 한다하여 ‘사이다’라는 호칭을 얻음
- ▶ 고구마 : 문재인 전 대표가 느리고 답답하다는 비판을 받자, "탄산음료(사이다)는 밥이 아니다.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며 강조
- ▶ 밥 : 안희정 지사가 본인을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에 비유함

□ 사회·생활 관련 신조어

- 국가와 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의 심리가 반영된 신조어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노케미족** : 화학제품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2016년 1월부터 '옥시사태'가 본격적으로 기사화 되면서 각종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안전감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
-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혐오감을 표현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반영되어 세대간·성별간의 불화와 격차를 나타냄
 - **여혐혐** : 여성혐오 현상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로, 여혐·남혐 논쟁이 불거지고, 올해 여름 강남역에서 여성혐오 범죄가 일어나면서 여혐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지나친 여성 혐오의 현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남
 - **틀딱** : 틀니딱딱의 줄임말로, 틀니가 부딪쳐 딱딱 소리를 낸다는 노인비하를 표현하는 단어로, '틀딱충', '틀딱아재' 등으로 표현됨
 - **노슬아치** : 老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단어로 나이를 앞세워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인 듯 말하는 자세에 반감을 나타내는 젊은층의 연령차별 언어
 - **팩트폭력** : 영어권 인터넷에서 '팩트를 사용하지 마세요(stop using the facts)'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 시작된 용어로 사실의 충실한 전달만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신념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

※ 비호감 '꼰대'에서 호감으로 변형된 '아재'

: '아재' 현상은 세대 간 불통에 따른 인정과 배려 등이 부족해 나타나는 문화 다양성의 결핍 현상으로, 상명하달의 위계적인 문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 도구이자 돌파구임

- ▶ **아재개그** : 아저씨가 하는 개그를 말하며, 반감 보다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용어
- ▶ **아재파탈** : 아저씨와 으르파탈의 합성어로, '나이가 들어도 꾸미면 멋있다'라는 의미

- 장기 불경기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현금·시간 부족을 민감하고 쉽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소비 효능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추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임
 - **츠츠** : 추천의 초성으로 타인의 추천에 높은 신뢰도와 의존도를 보이는 사회상을 나타내는 단어로, 국민들의 정보 습득의 습관에 변화가 생김
- 불안정한 고용과 바쁘고 힘든 직장생활을 표현하는 용어
 - **메신저 감옥** : 카카오톡 등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어 감옥 같이 벗어날 수 없다는 표현
 - **쉽포족** : 휴식을 포기할 정도로 바쁘고 고달픈 현대 직장인
 - **사축** : 회사의 가축처럼 일하는 직장인의 비애
 - **프로야근러** : 야근을 밥 먹듯이 일삼는 것을 비유
-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맞벌이 부부가 들자 조부모가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황혼 육아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
 - **할빠·할마** : 할빠(할아버지와 아빠의 합성어)와 할마(할머니와 엄마의 합성어)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육아를 하는 것을 뜻함
 - **할류 열풍** : 손주를 위해 고가 의류나 장난감 등의 소비를 아끼지 않는 현상
 - **피딩족** :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Financial), 육아를 즐기며(Enjoy), 활동적이면서도(energetic), 자녀에게 헌신적인(Devoted) 50~70대를 뜻함
 - **독박육아** : 조부모나 주변의 도움 없이 나홀로 아기를 키우는 경우

□ 경제 관련 신조어

- 나홀로족의 증가로 인해 1인 문화가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자발적 고립을 즐기는 사회 및 소비문화가 형성됨
 - **1코노미** :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소비생활을 즐기는 행위
 - **혼밥·혼술** : 나홀로족의 증가로 1인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대거 등장하며, 나홀로 활동이 더 이상 창피한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함
 - ※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마시기), 혼공(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쇼(혼자 쇼핑하기), 혼행(혼자 여행하기)등의 표현으로 활용됨
 - **탕진잼** : 탕진과 재미의 합성어로, 어려워진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자잘하고 소소한 소비를 즐기는 행위
 - **편도족** :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먹는 사람들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편의점 도시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음
- 감당할 수 없이 오른 집값으로 인해 자가 구입이 어려운 경제난을 반영
 - **신깡거루족** : 취업 이후에도 비싼 집값,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는 사람
 - **리터루족** : 결혼까지 했으나 전세난 등으로 부모 집을 돌아가는 사람
 - **온라인 집들이**: 어차피 살수 없는 집, 사는 동안만이라도 취향대로 집을 꾸미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홈퍼니싱(home furnishing)이 유행하며 생긴 용어로, 집안사진을 온라인에 자랑하는 행위

□ 취업 관련 신조어

- 취업 기회가 줄고, 기업에서 경력직을 선호하자, 실무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업체 인턴경험이 필수 스펙이 되면서 인턴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등장함
 - **부장인턴** : 인턴생활을 반복하여 기업 부장만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턴
 - **금턴·흙턴** : 인턴자리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데, 금턴은 가기 어려운 양질의 인턴 자리이며, 흙턴은 일을 잘 배우지도 못하고 허드렛일이나 단순 노동만 하는 인턴을 의미
 - **호모인턴스** : 각종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아 인턴만 반복하는 요즘 세대 구직자들을 뜻하며, 원시 인류의 진화 단계를 빗대어 표현
 - ※ 오스트랄로스펙쿠스: 취업이 어렵지 않던 취업 호황기의 세대를 표현
- 취업준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를 표현하는 용어가 다수 등장함
 - **밥터디** : 밥을 먹으면서도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정보를 나누는 스터디 모임으로 취업준비에 시간을 아끼기 위한 학생들의 치열함이 내재함
 - **대2병** : 자신감, 자존감이 넘쳐흐르는 '중2병'과 반대되는 증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방황하는 대학교 2학년 시기 표현
 - **사망년** : 스펙을 준비하느라 고통 받는 대학교 3학년을 뜻
 - **십장생** : 이제는 10대 조차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
 - **자소서포비아** : 자기소개서 공포증에 시달리는 증상을 뜻
 - **서류가즘** : 서류합격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을 표현하여, 서류통과조차 쉽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나타냄
 - **잡 노마드(job nomad)** : 일자리를 뜻하는 'job'과 유목민을 뜻하는 'nomad'의 합성어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가리킴

<네이버 모바일 국어사전 인기 신조어 검색 순위>

① 2015년

- ①**덕력**: 덕후 마니아의 공력
- ②**뇌섹남**: 뇌가 섹시한 남자
- ③**예지앞사**: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랑해
- ④**와리가리**: 반격을 받지 않고 적을 쓰러뜨리는 기술
- ⑤**엘룻기**: 프로야구팀 LG, 롯데, 기아의 앞글자를 딴 용어
- ⑥**삼포세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거나 기약없이 미룬 젊은세대
- ⑦**개이득**: '많이'라는 뜻의 접두사 '개'와 '이득'을 합쳐 아주 큰 이득을 뜻
- ⑧**앱등이**: IT기업 '애플'과 곤충 '곰등이'의 합성어로, 애플 브랜드를 추종하는 사람
- ⑨**입닥쳐 말포이**: 사람을 면박 줄 때 쓰는 말로,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대사
- ⑩**셀프디스**: 자신의 치부와 과오를 숨기지 않고 개그 소재로 사용하는 모습

② 2016년

- ①**츨데레**: 쌀쌀맞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정이 깊은 사람이라는 뜻
- ②**어남류**: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의 준말
- ③**어그로**: 눈길을 끌 만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받는 것 또는 그런 행동
- ④**화질구지**: 사진의 화질이 나쁘다는 표현
- ⑤**예지앞사**: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랑해
- ⑥**현피**: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당사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일을 가리키는 인터넷 용어
- ⑦**졸혼**: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서류상 이혼은 하지 않고 한집에 살면서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
- ⑧**하드캐리**: 게임에서 나온 단어로,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carry) 역할을 한 플레이어
- ⑨**리즈시절**: 지나간 전성기를 일컫는 신조어
- ⑩**딩크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일컫는 용어

□ 해외 신조어

- 2016년 제 45대 미 대선이 치러지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미 대선 관련 신조어들이 대거 등장함
 - **트럼프즘(Trumpism)** : 도널드 트럼프와 포퓰리즘의 합성어로 트럼프가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포퓰리즘에 의존해 표심을 잡는 것을 풍자
 - **트럼프시트(Trumpxit)** : 트럼프와 탈퇴의 합성어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경제가 고립될 수도 있다는 뜻
 - **칼렉시트(Calexit)** : 캘리포니아와 탈퇴의 합성어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 이후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뜻함
 - **거번먼트삭스(Goverment Sachs)** : 정부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합성어로, 골드만삭스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미국 대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
 - **힐리컨스(Hillicans)** :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합성어로, 클린턴이 공화당 분열을 활용하여 일부 보수파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 : 미국에서 부자 좌파를 비꼬는 용어로, 약자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고액 강연을 다니는 힐러리 클린턴을 풍자
 - **유튜브 디지털 포퓰리즘(Youtube Digital Populism)** : 미국 대선 운동에서 유튜브 동영상의 중요해진 것이 반영된 용어
 - **퍼스트 젠틀맨(First Gentleman)** : 여성 대통령의 남편에 대한 비공식 호칭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언급되기 시작한 용어

- 2016년 6월 영국이 유럽연합(EU)탈퇴하면서 이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등장했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EU 붕괴를 반영한 ‘탈출(exit)’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짐
 - **브렉시트(Brexit)** : 영국과 탈출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
 - **브리메인(Bremain)** : 영국과 잔류의 합성어로, 영국이 EU에 남는다는 뜻
 - **브렉쇼크(Brexshock)** : 브렉시트와 충격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가 가져온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을 의미
 - **브랭오버(Brangover)** : 브렉시트와 숙취의 합성어로, 브렉쇼크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숙취’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비유
 - **브라포칼립스(Brapocalypse)** : 브렉시트와 종말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한 용어

<표 1> 기타 유럽국가의 EU 탈퇴 관련 표현

용어	의미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넥시트(Nexit)	네덜란드의 EU 탈퇴
프렉시트(Frexit)	프랑스의 EU 탈퇴
옥시트(Oxit)	오스트리아의 EU 탈퇴
이탈리브(Italeave)	이탈리아의 U 탈퇴를 ‘떠나다’라는 단어로 표현
피니시(Finish)	핀란드의 EU 탈퇴를 ‘끝나다’라는 단어로 표현
체크아웃(Czechout)	체코의 EU 탈퇴를 ‘체크아웃’으로 표현

- 일본에서는 2030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선을 담은 신조어가 등장함
 - **유토리 세대** : 유토리는 일본어로 여유를 뜻하는 단어로, 1987~1996년생들의 사회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음
 - ※ 2016년 2분기 NTV에서 방영된 <유토리입니다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드라마를 통해 유토리 세대의 고충을 표현

< 콜린스²⁾의 '2016년 지구촌을 달군 언어' >

- ① **브렉시트**: 2013년부터 나오게 된 단어이지만 2016년 6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며 사용빈도가 3400% 증가
- ② **트럼프즘**: 트럼프가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충격적이고 황당한 발언들
- ③ **듀드푸드**: 패스트푸드, 그중에서도 주로 남자들이 즐겨 찾는 핫도그나 햄버거 등을 가리키는 단어
- ④ **조모**: Joy Of Missing Out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 현재하고 있는 내 일만 충실하다는 의미로 타인이 나보다 더 행복한지 아닌지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올해의 풍속도를 뜻함
- ⑤ **히계**: 덴마크에서 온 단어, 안락하고 유쾌한 삶을 누리는 '웰빙 라이프'를 지칭하는 것, 잘먹고 잘먹자 의미
- ⑥ **Mic 드롭**: 무대 위의 배우가 대사가 다 끝난 후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동작을 뜻함. 오바마 대통령도 한 연설에서 이 동작을 취하며 화제가 됨
- ⑦ **새런팅**: 자녀의 SNS 계정에 올라오는 뉴스, 사진 등을 공유하는 행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세대를 아울러 필수가 된 요즘 시대에 나온 풍경임
- ⑧ **스노우 플레이크 제너레이션**: 2010년대 젊은 세대의 특징 중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살짝 밟아도 자국이 나고 사라지지 않는 눈송이처럼 회복 탄력성이 이전 세대에 비해 떨어지는 요즘 청년들을 뜻
- ⑨ **로우 웨이드**: 미묘하게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비난을 하려고 하는 행위, 은밀한 디스
- ⑩ **우버라이제이션**: 모바일 기술 기반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간 직접 연결을 통해 주문·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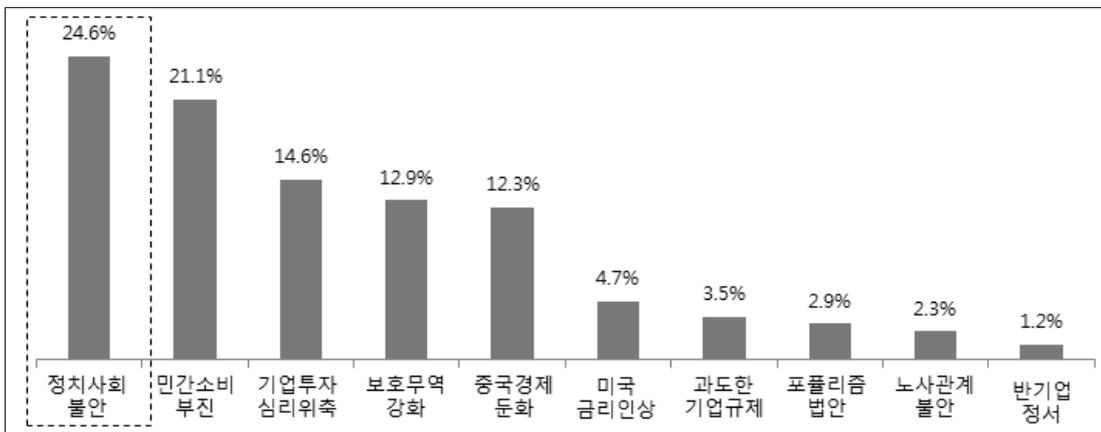
2) 영국 최대 사전 제작 업체 Collins

Ⅲ. 2017년 대선 7大 핫 키워드

① 경제위기 극복

- 최근 2017년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내용의 기사에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표현들이 인용되어,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 ※ ▲불확실성(머니투데이) ▲좌초위기(파이낸셜뉴스) ▲불황(한겨레) ▲암울(국민일보) ▲내우외환(이투데이) ▲산업빙벽(현대경제연구원) ▲사면초가(뉴시스)
-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2017년 국내 성장률은 2% 대로 하락 전망하여 불황이 지속되어 기업투자 심리위축, 민간소비 부진 등을 야기할 전망
 - ※ ▲한국은행 2.8% ▲한국경제연구원 2.1% ▲한국금융연구원 2.5% ▲현대경제연구원 2.6% ▲LG경제연구원 2.2% ▲전경련 2.6% ▲KDI 2.4% ▲KIET 2.5%
- 장기적 경제 불황과 함께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9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요인으로 정치사회 불안을 꼽음

[그림 1] 2017년 기업 경영환경에 주된 애로요인



출처 : '2017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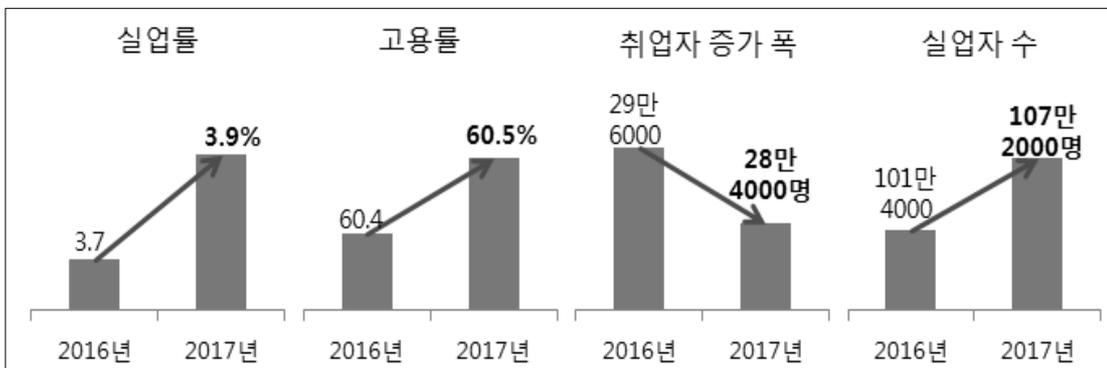
- ☞ 정치사회 불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구체적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공약 제시를 통해 경제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해야함

② 일자리 창출

○ 2017년 고용 전망은 2016년보다 더 어두워질 전망

- 경제 악화로 인해 기업 경영자들은 채용과 투자 규모를 줄일 예정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위기는 더욱 커질 전망
- ▲실업률 3.9% ▲실업자 수 107만 2,000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직자의 취업 경쟁을 가열될 것으로 예측됨
- ▲고용률은 0.1%밖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취업자 증가폭은 28만 4,000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취업난은 올해보다 더욱 심해질 전망

[그림 2] 주요 고용지표 전망



출처 : 한국고용노동원

○ 국민들이 미래 사회에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

- 경제 악화가 심화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는 56.7%로 미래 사회에 가장 염려되는 점으로 꼽히고³⁾,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앞으로도 한국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⁴⁾

☞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 마련 필수

3) 2017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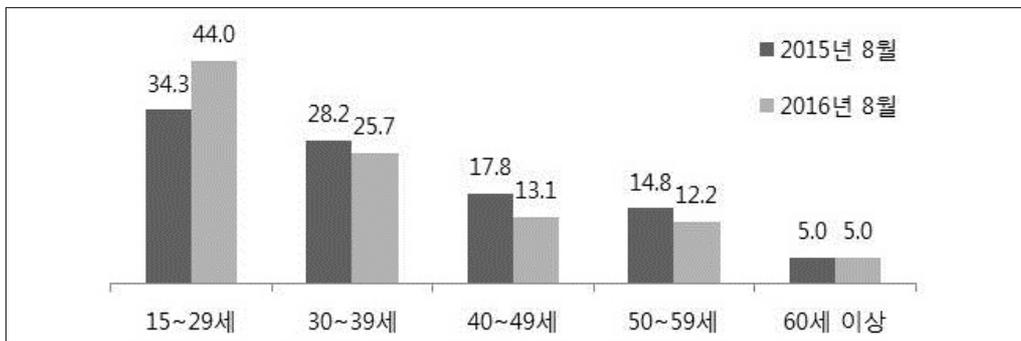
4) <가계 소득 및 투자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2016년 8월.

③ 청년 문제 해결

○ 청년 실업자 문제 심각성 가중

-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6년 8.5%(10월 기준)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8.6%(10월 기준)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6개월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비중 중 청년층은 44%를 차지하며 1년 새 2배가 늘어나,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연령별 장기실업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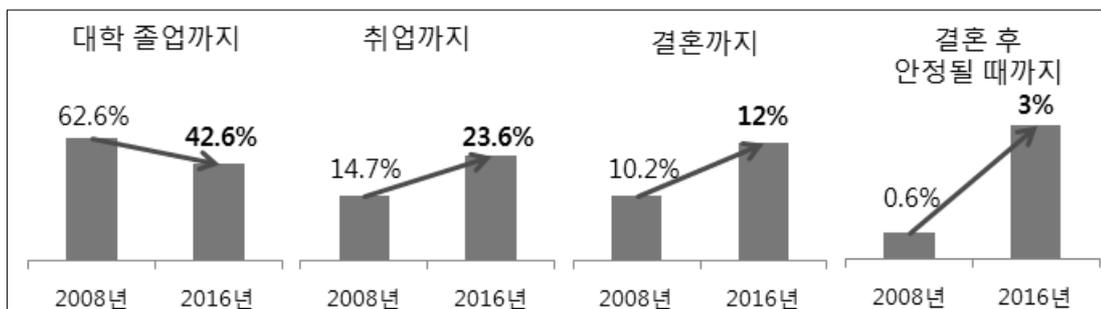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 청년 고용의 불안과 청년 세대의 늦은 결혼 때문에 썩어빠져가고 있어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취직 문제와 늦은 결혼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썩어빠져 청년들은 1985년 43.1%에서 2010년 59.2%로 늘어났으며, 결혼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그림 4]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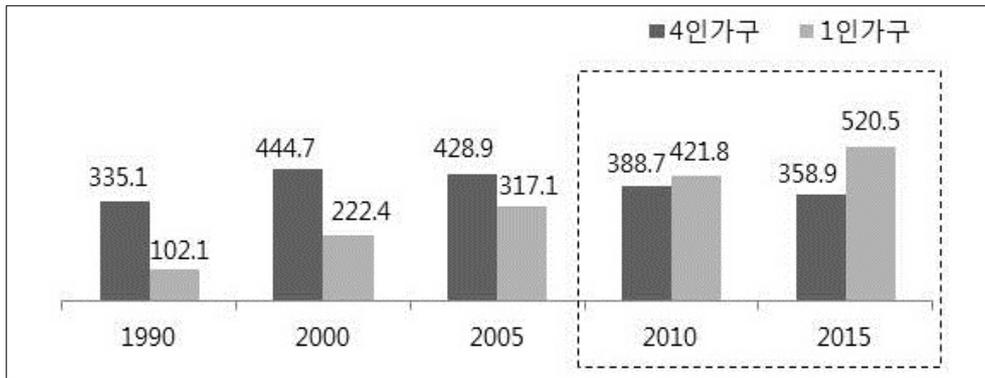
출처: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제고 방안 마련 시급

4 저출산 문제 해결

- 최근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이 증가하면서 1인가구는 2010년부터 4인 가구 수를 넘어섰으며, 2015년부터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 확대, 공동체의식 약화되면서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인식함

[그림 5] 국내 가구 구조의 변화 (단위: 만명)



출처 : 통계청

- 통계청의 '2015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 미혼율은 1995년 35.1%에서 2010년 52.5%로 15년 만에 17.4%p 상승
- 미혼인구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가 2010년 29.2%에서 2015년 36.3%로 7.1%p 증가로 가장 높음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한 상태이며, 청년층의 취업난, 주거난, 생활난 등이 극복되어야 함
- 高임금 남성이 低임금 남성보다 결혼률이 12배가 높게 나타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이 아닌 일자리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함⁵⁾
-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한 상태이며, 청년층의 취업난, 주거난, 생활난 등이 극복되어야 함

5)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노동사회연구소, 2016

5] 국가적 신뢰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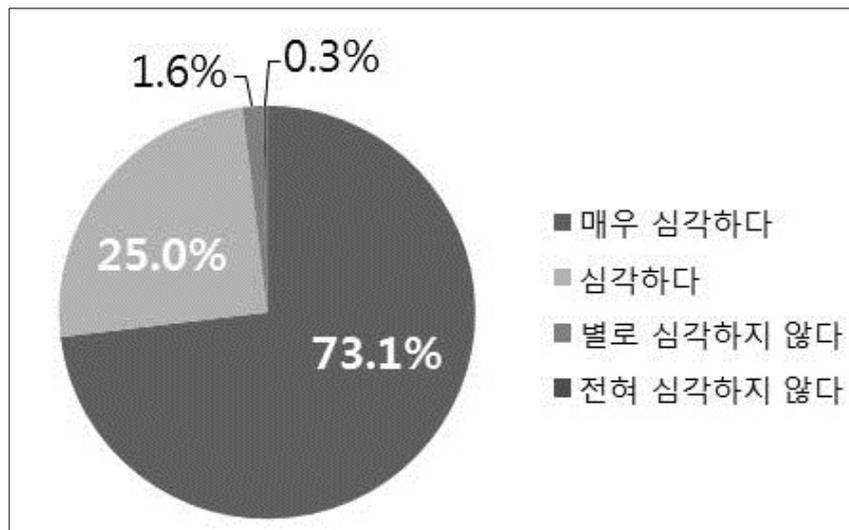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

-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옥시 사태 이슈화, 경주지진 등의 안전사고와 국가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전반에 퍼짐
- 98%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의 원인으로 ▲적당주의 45.6% ▲정부의 정책적 의지 미흡 25.8% ▲안전교육 및 홍보 부족 19.2%를 꼽음

○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에 대한 신뢰감 부재

- 국가적 위기 대응 부족으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불안은 점점 타자와 시스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의 불안감을 형성함
-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2009년 52.3%에서 2014년 43.8%로 하락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6]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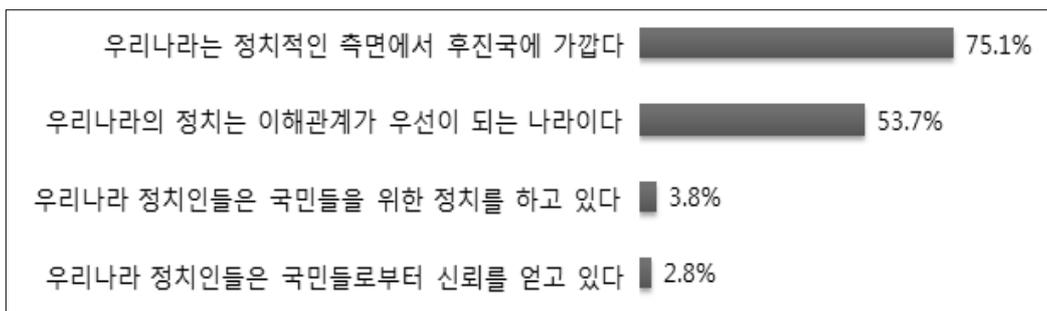
출처: '소방안전 여론조사 보고서', 서울시, 2014년 5월

☞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각자도생의 모색은 사회적 연대감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가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가적 신뢰 제고 필수

6] 공정사회 구축

-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추구해야하는 가치는 공정성
 -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이 가장 추구해야하는 가치는 ▲공정성(49.4%) ▲안전(43.4%) ▲이해와 배려(40%) ▲정의(35%) ▲평등(30%)⁶⁾
- 우리나라 사회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 하락
 - 사회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 29.7%로 총 60개국 중 20위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⁷⁾
 - ※ 1위 네덜란드(66.2%), 7위 독일(42.0%), 12위 미국(38.2%), 14위 일본(35.9%)
 - 국민이 느끼는 주변인 및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주변 이웃(6.2점) > 학계(4.9) > 언론·처음만난사람(4.0) > 재벌대기업(3.5) > 법조계(3.6) > 정부(3.5) > 정치권(2.8점)으로 우리 국민의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낮음⁸⁾
-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며, 낮은 신뢰감과 반감을 보임
 -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후진국에 가까우며, 이해관계가 우선이 되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7] 대한민국 정치 관련 인식 평가



출처 : 2017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경제신문

☞ 사회적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와 국민에게 범국가적 공정성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 필요

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경제신문, 2016.10.

7) World Value Survey, 2014

8) 우리나라 사회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10.5.

7 국민과의 소통

○ 19대 대선에 대한 2040유권자의 관심도 급증

- ‘최순실 게이트’ 이후 2040세대의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91%까지 상승한 반면, 5060세대의 관심도는 줄어들어 19대 대선은 2040세대의 투표율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연령별 대선 투표 관심도

연령	2012년 18대 대선	2017년 19대 대선
20대	80.5%	91.1%
30대	32.9%	91.3%
40대	90.7%	91.1%
50대	91.5%	83.6%
60대	93.9%	76.8%

출처 : 2012년 6월 EAI·한국리서치 조사결과, 2016년 12월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결과

○ 소통 스킨십 강화를 통한 2040유권자와의 소통 강화 필수

-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과 기득권에 대한 젊은층의 반감이 깊어져, 젊은 유권자와의 신뢰감 형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반감 개선 필요
-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젊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적극적 소통 시도 필요

○ 유권자와의 소통 스킨십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지지층 발굴

- 美대선에서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지향하는 백인층에게 ‘강한 미국’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백인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승리함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적 반감을 줄어나가고, 유권자 지지성향을 파악하여 마이크로 타게팅으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도해야함

IV. 키워드를 통해 새누리당이 실천해야 할 것

□ 불평등·불안·불공정 '3大 불(不)' 해소

-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3不인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일자리 감소와 안전에 대한 불안 ▲법치가 실현되지 않는 불공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함
- 2016년 신조어는 사회에 대한 불신, 세대 간의 단절, 젊은층의 체념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사회 현상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히 요구됨

□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국민들과의 소통 필요

- '최순실 사태'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한 2040유권자들은 기득권과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깊게 나타나고 있어, 탈권위주의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한 필수 수단임
-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소통하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여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場 마련이 요구됨

□ 강한 리더십으로 국가적 방향성 제시 필요

- 약해져가는 공동체, 개인의 불안이 타자와 시스템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강한 리더십 발휘가 요구됨
-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져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정당,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함

참고문헌

- 김난도 외 (2016). 『트렌드코리아 2017』. 서울: 미래의 창.
- 김용섭 (2016). 『라이프 트렌드 2017: 적당한 불편』. 서울: 부키.
- 백경혜 외 (2016). 『2017 트렌드 노트: 빅데이터에서 재발견한 비즈니스 키워드』. 서울: 북스톤.
- 주 원 외 (2016).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현안과 과제 16-41). 현대경제연구원.
- 최인수 외 (2016). 『2017 대한민국 트렌드: 新개인의 탄생·리얼리티·탈권위에 주목하라』. 서울: 한국경제신문.
-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도자료(2016.12.12.).
- “(막 오른 美대선) ‘트럼프즘’, 그 막말의 정치학”(2015.8.21.). 『이데일리』.
- “(2016 미국 대선) 월가는 루비오에 베팅?...골드만삭스 기부금 ‘급’ 몰린다” (2016.2.2.). 『이투데이』.
- “유튜브가 취락퍼락 하는 2016년 미국 대선”(2016.4.1.), 『한국일보』, A14.
- “본선전략 어떻게...클린턴, 反트럼프 보수파 끌어안기 ‘힐리컨스 전략’”(2016.5.9.). 『문화일보』, A5.
- “헬조선·반퇴세대·개저씨...신조어에 비친 한국사회”(2016.10.16.). 『연합뉴스』.
- “‘대2병’ ‘부장인턴’ ‘흙턴’...신조어로 보는 청년들의 취업고민”(2016.09.29), 『서울신문』.
- “‘브롭티미즘으로 브릴랙스?’ ‘브렉시트’ 신조어 사전”(2016.7.2.). 『뉴스1』.
- “넥시트(Nexit),이탈리브(Italeave)···늘어나는 브렉시트 신조어”(2016.7.12.). 『뉴스토마토』.
- ““울면 안돼요” 직장서 혼나는 법 배우는 日유토리 세대”(2016.7.26.). 『조선일보』, A20.
- “내년 경제성장 2%도 안될 네가지 이유”(2016.12.15). 『머니투데이』, A8.
- “(연말특집-2016 스경 드림어워드⑧) 2016년 온라인 신조어 알려 드림”(2016.12.22). 『스포츠경향』.
- Dark money’ is now in the dictionary. Here are 9 other political words that should be.(2015.5.27.). The Washington Post.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포커스」의 전문을 www.ydi.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07238)